

연중 제32주일

기도서 P. 474 B해

제1독서(열왕전 17, 10-16)  
제2독서(헤브 9, 24-28)  
복음(마르 12, 38-44)

# 숲정이

발행인 범석규  
인쇄인 김봉희  
주간 조성호  
편집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강론



## 새로운 길을 가는 杜鵑

유종환 신부

감옥에 가보신 분들은 감옥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인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도 광주 감옥과 전주 감옥에 여러 차례 가본 일이 있었다. 죄수들의 聖化의 목적으로 갔었지만 감옥에 갈 때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무엇에 짓눌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참회의 길을 걸어가는 죄수들-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수 인내하는 그리스도의 형제들 속에는 자유스러운 사회인에게도 찾아보기 힘든 진실성과 겸손함과 사랑이 넘치고 있었다.

내가 편지 왕래를 하였던 杜鵑(스스로 지은 이름) 형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범수였다. 외향은 푸른 죄수복 차림에 맨발과 까까머리(삭발)였지만, 내면 깊숙이에 흐르는 빛은 분명 그리스도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었다. 동생을 맞이하는 형-친구를 맞이하는 벗-에타게 기다리던 애인을 맞이하는 순수한 사랑-이 모든 것들이 두견의 눈동자 속에 새겨져 있었다.

나자렛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걸기 위해서 교도소에 서 손쉬운 인쇄공에서 힘든 목수일을 선택했고, 杜鵑의 십자가도 힘겨운 것이지만, 후배 참회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聖化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한다 했다.

하느님의 눈에 누가 외인이고, 누가 죄인인가? 스스로 의인인척 하면서도 불쌍한 근로자나 농민을 외면해 버리고-길가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어린 아이들을 외면하는 자가 의인이란 말인가? 나자렛 예수님의 言行에 따라 누우침의 생활을 하는 속죄자 복역수가 의인이란 말인가? 이것을 옳게 판단해 주시는 분은 오로지 우리 주님 그리스도 뿐이리라.

“자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 놓았으니...”(마르 12, 44) 없어질 재산은 잃었지만 하느님, 최상의 주님을 차지한 것이리라.

<무주 천주교회 주임신부>



## 勞働相의 自殺

-삶은 잠깐

프랑스의 현직 노동상이 자신의 토지 스캔들에 대한 언론의 비난에 자살로 대답을 했다. 이에 대해 무책임한(?) 언론이라는 비난도 있는 모양이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언론이 재판을 했다는데 근거를 둔 비난이다. 그러나 언론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다시 언어맞지 않도록 정치인은 수신제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서는가 하면, 앞으로도 정치인의 부패사실 폭로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꼭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논란은 뒤로 미루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자세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 같다.

일찍이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지도자의 부패와 부정을 더 악질적인 죄악으로 여겼다. 그것은 지도자들이 자기네의 본질적인 사명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당시의 지도자들을 스바니야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고관들은 그 한가운데서 우르렁거리는 사자요/판관들은 아침에 먹을 뼈 하나 남기지 않는 저녁 이리이며/예언자들은 경솔하고 속이는 자들이요/사제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어기는도다(스바니야3, 3-4).」

에루살렘의 지도급 인사들은 민중의 권익옹호는 커녕 약육강식을 일삼는 사자요, 판관들은 빈민을 착취하는 저녁녘의 이리메에 비유된다. 그리고 사회의 몰락이 되어야 할 예언자(※ 국왕의 정치에 의견을 주고 그 댓가로 월급을 받던 궁정 예언자)는 무책임하고 어용적인 예언을 하며, 사제를 또한 거룩함을 외면하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배신하고 있다. 스바니야는 당시의 지도계층 전체를 위의 신탁(神託)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聖書의 가난한 사람들 p. 139)

삶은 잠깐이다. 바르게 살고, 후시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를 빌자.

## 숲정이 산책



인생은 순간적  
참되게 살자!

# 주일성화와 사목에 관한 주교회의 지침(요약)

## 1. 머리말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주일의 성화는 그리스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데 오늘날 주일성화는 여러가지 이유와 상황 때문에 소홀히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다. 차체에 그리스도 신자들은 주일의 뜻과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그 성화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주일의 기원과 의의

#### 1. 구약의 안식일

주일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는 구약의 안식일에 대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안식일이 주일의 예표(豫表)이며, 주일은 그 완성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철저한 휴식과 야제를 섬기는 거룩한 날이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엄격히 지켰다. 때로는 지나칠 정도여서 가끔 폐단도 있었다.

신약에 와서 안식일은 주일로 대체되고 폐기되었다.

#### 2. 신약의 주일

사도들이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한데는 그럴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다음날인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류는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는 구원된 인류의 주님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일요일은 영원히 성별(聖別)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은 참으로 기쁜 날이다.

교회의 전통을 보면 주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쁜날로 지켜져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주일의 성화

#### 1. 주일미사

미사성제는 예수께서 최후만찬시에 제정하신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념제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상 제사를 재현하여 세상 끝날때까지 이를 영속화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공로를 받아 입을 수 있게 하는 빠스카 잔치다.

초대에서부터 신자들은 미사성제를 주님의 부활기념일인 주일에 거행하기 시작하였다. 미사성제가 주일의 핵심적 경신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사실 주님의 기념제인 미사성제가 없는 주일이나 그리스도 신자들의 모임은 어떤모로 빈 것이라 할 수 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주일에 미사성제를 거행하는 것을 기쁨과 특전으로 여겼으며, 오늘에 이어오는 주일미사의 전통을 이룩하였다. 사실 그리스도 신자라면 주일미사 참례를 하나의 특권이요, 영광된 의무로 간주해야 한다.

주일미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회는 이미 4세기초부터 이를 교회법으로 의무화하고 신자들에게 강력히 권장하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신자들도 초대교회와 교회전통을 따라 주일미사 참례를 마땅히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일에도 부득이 미사참례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신자들은 가능하면 토요일특전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본당신부의 판면을 받거나 스스로 판단하여, 주일미사에 불참하여도 윤리적 죄책은 없다.

## 2. 주일의 휴식

주일에 미사참례를 하려면 자연히 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주일휴식의 기원이다. 그리고 기쁜날(주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쁜 날이다) 일을 멈추고 휴식을 즐기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주일의 휴식은 그리스도교에서 기인한 것이며, 그리스도교가 인류문화사에 기여한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대 교회에서는, 주변 상황때문에 주일의 휴식이 일반화되거나 법으로 규정되지는 못했었다. 다만 기원 6세기경에 와서 비로소 교회법으로 규정되고 의무화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주일의 휴식은 단순히 심신의 휴식만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주일 휴식의 예배적 성격)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기 위한 것이다. 즉, 주일미사에 참례하여 주님을 기리고 주님을 추모하며 하루를 기쁘게 소일하는 것이다.

교회법은 주일휴식에 대하여 “신자들이 주께 마땅히 드려야하는 공경을 못드리게 장애하거나 주님의 날에 있어야 할 기쁨이나 심신의 휴식을 못 누리게 하는 모든 노동과 업무를 피해야 한다”(새 교회법 초안 제4권 Sect II.46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들 가운데는 주일에 노동을 해야하는 농민과 노동자 및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물론 주일휴식을 지킬 수 없을뿐 아니라 지킬 의무도 없다. 사목자들은 그러한 신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별한 사목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사목적 고찰

#### 1. 미사 전례의 중요성

미사성제가 주일성화의 핵심인데 비추어 주일의 미사 전례는 가장 경건하고 품위있게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미사전례에 대한 신자들의 이해와 용이주도한 준비가 필요하다.

#### 2. 주일 미사와 신자공동체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일치된 모습은 미사성제를 통하여 잘 표현된다. 따라서 주일미사는 신자공동체의 가장 중요하고 우위적(優位的) 공식행사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 의의를 충분히 살리도록 잘 거행되어야 한다.

#### 3. 주일미사와 신자생활

주일미사는 신자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신자들은 미사중에 열심히 기도하며 제물을 봉헌할 때에 자신의 노고와 희생과 생활전체를 그리스도의 제물과 합하여 하느님께 바침으로 자신의 제사도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활전체의 성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자생활의 의의가 없어진다.

#### 4. 토요일 특전미사

토요일 특전미사는 부득이 주일에 미사참례를 할 수 없는 신자들을 위하여 자모이신 성교회가 특별히 배려한 특전이다. 따라서 그 남용(충분히 주일미사에 참례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참례하는 등)은 없어야 하며, 주일에 미사참례를 못할 것을 예견하는 신자들은 이것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 5. 주일 공소 예절

공소 예절은 미사가 없는 공소에서 주일미사 대신 주일의 뜻을 살리며 하느님을 경배하고 성체대신 주님의  
(3면에 계속)

<2면에서 계속>

말씀으로 양육되는 "말씀의 식탁"이다. 사목자들은 이 공소 예절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6. 휴일의 즐거운 휴식

"주일은 즐거움과 휴식의 날"이다. 모든 사목자와 신자들은 이 즐거움과 휴식이 모든 신자공동체(가정·본당·공소)에 있어 주님안에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7. 주일 노동자

오늘날에도 가난과 교대제노동, 기타 이유로 주일에 일을 해야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이 주일휴식의 의무에서 면제된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들은 그러한 자신의 위치를 알고 불필요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도록 잘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주일미사 참례를 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영신적 손실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목적 배려를 하는 것은 사목자들의 중대한 의무이다. 그들 자신 역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주님을 맞갖게 섬기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8. 파공 관면

"파공"이라는 말은 주일과 대축일에 노동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주일에 부득이 일을 해야 하는 교우들은 "파공 관면"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교회의 법이다.

우리 한국교회는 1966년 교황청으로부터 모든 주일과 대축일에 일을 할 수 있는 일반적 관면을 받과 있다. 그것은 그 당시 한국 교우들이 주일에도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일반적 파공 관면이 아직 철폐되지 않은 오늘날 한국 교우들은 개별적으로 관면을 청할 필요없이 주일에 노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때부터 13년이 경과한 오늘날 파공 관면을 둘러싼 여러가지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일반적 파공관면을 받고 있는 예외적 상태가 오래 지속됨으로 일반적 주일성화에 대한 의식과, 특히 주일의 거룩한 휴식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은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깊이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 주교회에서는 아직 일반적 파공 관면을 철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예외적 일시조치인 일반적 관면이 언젠가는 철폐되고 본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임에 비추어 신자들의 주일성화(주일미사 참례와 거룩한 휴식)에 대한 교육과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주일성화와 사목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오늘날에는 주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당연히 주일의 거룩한 휴식을 취할 본분이 있다.

그리고 오늘날은 신자들의 지식수준과 자주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주일에 부득이 노동을 해야 하는 신자들은 일일이 관면을 청할 필요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신자들에게 일일이 관면을 주는 것은, 현대적 상황에 있어서는, 이미 잘 맞지 않는 일이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요심이 (328) 김병오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송옥의상실

최춘자(로사리오)

(이시계점열)

전화 ② 6219

□남성의 멋을 드립니다

베드루네 집

(아카데미 백화점 A5호)

안철만(베드루)

\*교우님들의 아낌에 감사드립니다

동력자원부 신규허가(제10호)

수복표 보수보일러(주철제)

시공, 수리, 상담

全國總販(代理店 募集)

수복표 大同工業社

전화 ② 8661

대표 李仁石(미카엘)

□개업안내

테이프·레코드·카세트·DP&E

숲정음악사

홍지서림 남쪽편

전대수(베드로)

★ 꼭 한번 들려주세요

맛사지 전문, 여드름 치료제, 오존 맛사지, 족점, 제란, 팩

아모레 아카데미 체인점

(아카데미 상가)

최진순(테레사)

전화 6-0317

□정확 미용학원 학생모집 □

윤경미장원

(신부화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구역전 앞

최윤경(유리안나)

전화 ② 8653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자국[시계])

주이황수(바오로)

전주 남문 옆

전화 ② 8188 (자 ②0369)



1. 추계 사제총회...11월 13일<화>
  2. 지성인을 위한 사상강좌...11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 가톨릭 센터에서  
주제-갈락스의 종교이론, 강사-박도식 신부님
  3. 치명탈 발간에 필요한 원고모집...11월 30일까지(기타 공문참조)  
각 분당 중·고등학생 회장님, 학생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4. 여자 제모의...11월 11일<일> 오후 2시, 성심여고 강당에서
- 정의 평화를 위한 성금...복자 성우회(1만원)  
 군인들을 위한 목주성금...여산 정은주(5천원), 복자 교우들(1만원)

**(중암)**

주임 신부 서 동 복  
보좌 신부 왕 해  
사도 회장 이 북

전화 ③3651  
3874

1. 꾸리아 : 11일<일> 오후 2시
  2. 교무금은 월별로 납부하세요
  3. 제대에 꽃을 봉헌하실 분을 찾습니다
  4. 성탄 영세일 : 12월 15일<토> 준비 잘 하세요
  5. 전공 공개식 : 11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 272,786원

**(노충동)**

주임 신부 김 정 원  
보좌 신부 나 공 열  
사도 회장 김 성 록

전화 ②7032

1. 성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회원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2. 신우회 월례회 : 오늘 오후 3시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3. 제1회 신앙강좌 : 매주<일·수> 저녁미사 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교무금을 속히 완납합니다  
분당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5. 신년도 활동계획서 제출 : 모든 단체의 회장님께서는  
귀 단체의 신년도 활동계획서를 속히 제출하세요.  
단,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단체의 활동은, 분당에서  
협조 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66,415원

**(덕진)**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전 종 복  
사도 회장 유 제 상

전화 ②2182

1. 학생미사시간 변경 : 일요일 9시로 미사후 성가연습
  2. 고백성사 : 미사 30분전 미사중 성사없습니다
  3. 주일미사 늦지않시다  
적어도 10분전까지는 성당에 나오세요
  4. 예비자교리 : 일요일 오전 11, 수요일 오후 8시
  5. 사도회 확대회의 : 11월 18일  
80년도 사업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6. 축! 결혼 : 박종근(안드레아), 김아너(아베스)  
11월 18일 11시
- 지난주 봉헌금 : 34,060원 교무금 : 134,530원

**(복자)**

주임 신부 김 종 택  
보좌 신부 박 성 팔  
사도 회장 조 성 호

전화 ⑤5238

1. 성모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오늘 12시 전동성당에서 성우회장님의 차남 혼인성  
사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람
  2. 성미운동 : 속죄의 뜻으로(가족들의 속죄) 모든 가정  
에서는 빠짐없이 성미운동에 참여합니다
  3. 평신도의 날 : 다음주일(18일) 특별헌금 있음
  4. 봉헌금 미수정리 : 봉헌금 봉투에 미수금액을 적었으  
니 속히 완납 바람
  5. 축! 영명  
박성관 안드레아 보좌신부님의 영명축일이 30일입니  
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지도와 수고에 감사  
드리며 축하의 기도를 드립니다
  6. 영화상영 : 구세주(오늘밤 미사후) 많은 관람 바람
  7. 추수감사 및 위령 합동미사 : 11월 25일 공식미사  
지난 1년간의 여태까지 많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먼  
저 가신 선영들을 위해 모든 신자 가정에서는 빠짐  
없이 합동미사를 봉헌하며 열심히 기도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37,44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황 인 구

1. 선교주일 : 10시미사 후(L.M 간부)
  2. 유아세례 : 13일 오후 7시30분
  3. 반장님 회의 : 10시미사 후
  4. 80년도 사도회장단 선거 : 25일 10시미사 후  
회장단 임후보 진행위원  
L.M간부·학생회 간부, 구역장·반장님,  
어머니회·할머니회 간부, 현사도회 고문 및 임원,  
형제회 일동  
※ 이상 진행위원 일동은 10시미사 후에 학생회의실  
에 모여주세요
  5. 금주 가정방문 : 5반-12일, 7반-15일, 6반-14일,  
8반-16일
  6. 수요기도회 : 14일밤 8시
  7. 순교자 현양대회 기념록주 판매
- 지난주 봉헌금 : 84,545원

**(숯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성모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청년회 임원개편 및 다과회 : 11월 15일<목> P.M.  
7시 청년회에 가입치 않으신 숯정이 청년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원일동
  3. 신축기금 내주시 분 : 부녀회(60만원), 서숙자·김동-  
선(각 50만원), 박해근·익명(각 30만원), 김경태·  
이기호·이영자(각 20만원), 이종옥·김귀선·노재-  
두·김용권·김정숙·남상용·권춘자(각 10만원),  
안재구·박순애·이금혜(각 5만원), 이근수·박영희·  
조봉순(각 3만원), 임옥자·한진섭·유옥연(각2만-  
원), 한완남·정준모·강호숙(각 1만원), 김후생·신-  
부·유달혜·이성군(각 5천원), 신재마(2천원), 김-  
종옥(3만5천원)
- 지난주 봉헌금 : 143,46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병 열  
보좌 신부 김 기 수  
사도 회장 유 석 중

1. 자모회 : 10시미사 후
  2. 장우회 : 10시미사 후 성당 집합(강해통회원내 방문)
  3. 성화회 : 10시미사 후
  4. 성가정회 : <월> 오후 2시
  5. 가정방문 : 남노충동(14일~15일)  
중앙동·다가동(16일~17일)
  6. 가정형편에 의하여 임안필라 여자 사임하고 오노사-  
마리앙을 임명하였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301,05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 영 일  
사도회장 채 수 현

1. 사도회 확대회의 : 11월 11일 주일 공식미사 후  
사도회임원 및 구역장님들 전원 참석 요망
  2. 어린이 미사시간 변경  
토요일 오후 5시미사를 4시로 변경,  
교리도 3시반 것을 2시30분으로
  3. 신설 레지오 : 금요일 어머니미사 후 2개 브레시디움-  
을 갖고 있으니 많은 어머니들 참석 요망
  4. 바쁘신 분을 위해서 주일 공식미사  
레지오 브레시디움 회합이 있으니, 역시 신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많은 참석을 요망
  5. 오늘 우리 유치원 그림잔치입니다 많은 관람 요망
- 지난주 봉헌금 : 64,020원 교무금 : 49,000원